

한국 과일소비, 일본보다 1.6배 많아

구매시 韓 '신선도 중시' 日 '맛·가격에 민감'

농진청 "고품질화로 소비확대 대응방안 마련"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과일 300g 이상을 먹는 소비자가 한국(51.3%)이 일본(3.8%)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구매할 때 신선도를 중시했고, 일본 소비자는 맛과 합리적인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다발용 국화가 새로 피었네

27일 원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국화 평가회가 열린 가운데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품종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 꽃다발용 국화는 크기가 다양하고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0년 일본 중앙과일협회가 실시한 과일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두 나라의 과일 소비·생산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2018년 기준)은 한국이 57.5kg으로 일본 23.7kg보다 약 1.6배 많았다.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소비자의 경우 건강에 좋아서(40.6%), 일본 소비자는 맛있어서(40.5%)라고 각각 응답했다.

과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 비중은 한국(49.8%)이 일본(38.7%)보다 높았다. 반면, 두 나라 소비자는 과일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로 '한 번에 먹기'에 포장된 양이 너무 많다, '다른 먹거리가 흔하다',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한국 소비자는 과일을 고를 때 생과일 위주(99%)로 구매하는 반면, 일본은 가공과일(64.4%) 소비가 우세했다.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일본 소비자의

60% 이상이 과즙이나 조각·건조 과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한국보다 가공과일 소비량이 1.5배 많았지만, 일본은 용도별로 가공과일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과일을 구매해 직접 가공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방식은 한국이 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약 1.2배 많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액은 일본이 한국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량품종이나 품목전환으로 고품질 위주 과일을 생산해 평균 가격 상승효과를 꾀해 소득을 확보하려는

반면, 한국은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프리미엄 소비층과 실속 소비층을 구분해 프리미엄 소비층에 대해서는 맛과 겉모양 모두 철저하게 고급화로 대응하고 있었다. 반대로 실속 소비자에게는 겉모양보다는 맛에 치중하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의 과일 관련 연구 방향은 생산성·내병성 등 생산관점에서 맛·소비 편의성·기능성 등에 치중하는 소비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감귤품종의 경우 재배용

이성, 생산성, 수확시기를 중시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고품질(고당도·식미), 섭취 편의성(껍질 벗기기 쉬움 등), 고부가가치(겉모양 무해성, 방향성 등)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검정평가 우수과 과장은 "소비자가 과일 구매를 늘리려는 의향은 있지만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과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품질화로 면적 당 생산량은 증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과일 소비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향상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52년만에 첫 여성 임원 탄생

전북은행, 이사회서 김선화 CCO 선임



전북은행은 역사 반세기 만에 굳건한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 여성 임원을 탄생시켰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CCO(Chief Customer Officer)에 김선화(52) 고객업무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CCO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김선화 CCO는 앞으로 은행 전반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진단하고 개선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의 첫 여성 임원 타이틀을 달게 된 김선화 CCO는 29년차 JB맨으로서 영업점과 주요 본부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위외내강형 리더로서 직원들의 신앙 또한 두터웠다.

특히 이번 전북은행의 여성 임원 발탁은 서한국 은행장 취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고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경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지향과 여성인재 발탁으로 유리천장을 해결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능력 및 역량을 배제하고 '여자리서' 오르지 못했던 기존 구세대의 발상에서 벗어나 요즘 사회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한 전북은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김선화 부장은 "첫 여성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제 몫을 충실히 해 나가면서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가 최근 금융 산업의 변화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며, 본부 부서 및 영업점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화 부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여고등학교와 군산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입학 후 영업점은 물론, 전산부와 종합기획부 재무팀장, 리스크관리부 신용리스크 팀장, 여신심사 부장 등을 거쳐 현재 고객업무부장을 맡고 있다. CCO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김윤상 기자

광역정전사고 예방 '의기투합'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협약... ESG 경영 공동 실천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국가 전력수급 운영 책임기관인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손잡고 광역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공사는 27일,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정동희 이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광역정전사고 예방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나가는 일에도 함께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였다.

두 기관 대표는 이날 협약에서, 국가 산업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발전소와 전력망 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광역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 자문 발전전력설비 기술자료 제공 및 정보 교환 등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현 사장은 "전력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정전사고 예방의 기반을 한층 굳건히 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앞두고 친환경 전력설비 안전 확보에도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또한 설비 진단기법 공유를 통해 중·소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후환경 개선 등 ESG 경영을 확산시켜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재)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은애)는 지난 28일 제2회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진행된 여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벤처기업협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도내 예비·초기 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 발굴해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인큐베이팅(창업보육 및 설립준비) 및 지역자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비대면)를 거쳐 1차 본선 진출자 20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민경씨의 '핸드드라이버와 핸드크림의 기능을 하나로! MOST DRYER(에어청업 부문)와 유원회사의 'Eco-Friendly' 영유아 미술놀이 키트(기장업 부문) 아이디어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력과 개발능력, 성장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선 대회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창의성, 효과성 등이 우수한 최종 10팀(예비창업 5팀, 기창업 5팀)을 선발, 최우수상 100만원(2팀), 우수상 50만원(4팀), 장려상 25만원(4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

한다. 유원회 씨는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고도화 하고,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받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변에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불어 올해 첫 기창업자 대상 우수상은 전북벤처기업협회와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회의 후원으로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윤성 기자

'김치가공공장 통합' 결정

부귀농협, 총회 열고 김치중주국 위상 제고 위해

진안 부귀농협(조합장 김영배)이 27일 농협김치의 경쟁력 강화와 김치중주국 위상제고를 위해 46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 찬성률 98%로 김치가공공장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김치가공장 통합은 최근 중국의 김치공정과 '알뜰배추' 파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로, 이번 부귀농협의 통합 결정은 전국에서 수안보농협, 웅천농협에 이어 3번째다.

그동안 농협 김치가공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듯 보였으나,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경영상황으로, 지속적인 단독 운영 시에는 농협 계통매장에서조차 경쟁사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식품업계는 전망하

고 있다. 통합이후, 공장간 중복된 판매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목표시장인 농협 계통매장 및 온라인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배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서 통합법인의 경영안정과 책임경영을 위해 현금출자를 실시하고, 부귀농협은 김치가공장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며 "통합이후조합원들이 생산한 고추, 배추 등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귀농협 김치가공장은 1992년 설립, '미이산김치' 브랜드로 묵은지를 전 문화하여 판매해오고 있다. 통합이후, 농협의 식품판매 자회사인 농협



부귀농협 미이산김치가공공장 전경

식품의 대리점을 활용한 판매와 OEM 생산을 통해 전국규모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농협진안군지부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전국의 농협 김치가공장 10개를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통합이후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김치의 시장 인지도 상승 및 매출확대를 위해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MG와 만나면 당신이 주인공

당신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니까
모두에게 든든한 보험이니까
MG새마을금고를 만나면
당신도 주인공이 됩니다

MG새마을금고

LX, 올 하반기 120명 신규채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철·LX공사)가 올해 하반기 120명을 신규 채용한다. LX공사는 지난 25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 11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수를 받는다. 채용 규모는 국토정보직, 기획경영직을 포함해 총 120명이다.

LX공사는 11월 13일 필기시험, 12월 초 면접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LX공사는 그동안 지역인재채용에 앞장서 왔다. 전북지역에 지적측량 학과가 소수인 관계로 LX공사는 열의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실명회 등을 적극 개회해왔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정부의 지역인재 목표비율인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지역인재 채용이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국가과제인 만큼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